Sony, "화학사업 매각" 전격 결정

매각금액 300억-400억엔 예상 … TV부문 부진으로 2200억엔 적자

일본 소니(Sony)가 주력사업 집중을 위해 화학부문을 매각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월22일 보도했다.

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, 소니는 평판TV에 사용하는 광학필름 등을 생산하는 화학부문을 일본정책투자은행에 2012년 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. 매각금액은 300억-400억엔(약 4000억-5400억원)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자회사인 Sony Chemical & Information의 주력사업인 화학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이다.

소니는 TV 부문의 부진으로 2011회계연도에 2200억엔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이 악화해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다.

이에 따라 비주력 사업을 매각해 본업인 전자부문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.

4월1일 사장에 취임할 히라이 가즈오(平井一夫) 부사장은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매각해 <선택과 집중>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22>